

Jueun Heo

✉ jueun.heo9036@gmail.com
 ☎ +82 10 5803 9036
 🌐 linkedin.com/in/jueun-heo9036
 🏠 Seoul, Republic of Korea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어디서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첫째, 저는 기다리기보다 공부하여 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실습 항해사로서 승선 당시 워크플랜을 참고하여 주간 작업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관련 선내 자료를 찾아보며 작업 과정과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는 수행 과정을 노트에 기록하며 복기했고, 업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훈련 계획표와 교육 참석표 등 선내 문서들 또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메일을 통해 업무 숙지 중 송부된 중국 수속 서류의 오기재를 발견해 즉시 보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며, 저는 사소한 것들이 실제 비용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어떠한 업무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되, 반드시 정확히 무결점임을 확인하여 다음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더하여, 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당시 저는 업무 보고 방식과 선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이를 3항사님과 야간 당직 후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업무 중에도 더 세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정중한 소통과 신뢰 형성이 협업의 기본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안전 항해’를 주제로 진행한 PBL 대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영어 재결서와 해도에 항적을 직접 그려봄으로써 와카시오호 좌초사고를 분석하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팀원들 간의 선박 지식 차이에 따른 참여도와 관련한 갈등도 있었지만, 저는 리더로서, 각자의 이해도에 맞춰 역할을 배분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크로스 체크를 하는 동시에, 반복적인 피드백으로 팀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팀원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성장하려고 합니다. 발표와 소통 역량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 판단했고, 이와 관련한 부담이 컸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스피킹 대회와 발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를 분석하고 제 발표 영상을 직접 보며 개선점을 찾았으며, 자료 구성에 대한 강연을 찾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학부 스피킹 대회와 전교생 대상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었으며,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량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지해운에 지원한 이유 또한 이러한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지해운은 오랜 기간 LNG선대를 운영해 온 전통 깊은 회사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임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갖춰진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경력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동지해운의 환경은 저의 방향성과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과 협업하며 글로벌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선장으로 성장해 안전 운항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목표를 위해 초임 3등항해사로서 작은 업무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배우고 확인하며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다각도로 판단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보고와 철저한 확인 절차를 통해 선내 안전과 팀워크에 기여하는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효율적인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동지해운에서 첫걸음을 시작하며, 실력 있는, 신뢰 받는 항해사로 동지해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